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7

/ 전화 (02) 720-2732

/ 전송 723-1965

문서번호 국행삼 01022 - 14

시행일자 1994. 1. 15. ()

(경유)

수신 수신서 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1년		
조정관			
심의관			
서기관			
기안			
			협조

제목 수질관리 개선대책 지시 (국무총리지시 1994-2호)

1.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1. 15일 확정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은 식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원.부.처에서는 세부 실천계획(년차별 투자계획포함)을 수립하여 1. 26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질관리 개선대책 1부. 끝.



훈령 제 312 호 (95. 5. 31)

에 의거

국 무 총 리 FAX 민서승부

수신처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

水質管理 改善 對策

1994. 1. 15.

총괄 제312 호(95. 5. 31)
에 의거 편집

關 係 部 處 合 同

차례

1. 問題의 提起	1
2. 물管理의 問題点	2
3. 改善對策	4

1. 問題의 提起

산업화의 진전과 生活水準 향상에 따라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질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이나 최근 국민적 우려를 자아낸 낙동강 水質汚染 事件으로 인해 수돗물과 물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낙동강 水質汚染의 直接原因

- 공장 및 축산폐수 불법배출
 - 영주시 삼양금속의 폐암연유 유출
 - 불명업소의 벤젠·톨루엔 등 유해폐수 불법 방류
- 정수방법의 미흡
 -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위해 과다 투입한 염소가 벤젠 등과 반응하여 악취 심화
- 갈수기의 수량부족
 - 평상시 강수량의 16% 수준으로 자정력 저하

□ 間接原因

- 환경기초시설 부족
 - 낙동강 중·상류지역 하수처리율 32.5%(전국 39.0%)
 - 연휴기간중 일부 오염방지시설 가동중단 및 감시단속 소홀 추정

2. 물管理의 問題點

□ 물管理 體系의 多元化

○ 물관리 機能의 多元化

- 汚.廢水 團束(자치단체.환경처), 原水 水質基準 및 오염도 측정(지방환경청), 댐.河川管理(자치단체.건설부), 淨水場 管理(자치단체), 수돗물 수질기준 및 측정(보사부.자치단체) 등 여러 기능이 분산 관리되고 있음
- 갈수기의 수질악화가 연례화됨에도 댐과 정수관리기구 상호간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제공, 방류량 조절 등 업무 협조 체제 미흡

□ 施設投資 미흡

○ 下水處理場 등 環境基礎施設 不足

- 전국의 1일 하.폐수 발생량 2,317만톤중 종말처리되는 양은 839만톤(처리율 36.2%)에 불과

○ 淨水方法 落後

- 수질이 악화된 하류지역에서도 대부분 재래식 정수처리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정수장에서만 활성탄 또는 오존처리 방법을 활용

□ 細配水 施設 미흡

- 전국 대부분의 屋內水道管이 부식성이 강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녹물발생 심화
- 안정적 급수체제 미비
 - 중간 배수지가 없는 원거리 공급체계에서는 염소농도가 일부지역은 높고 일부지역은 낮은 현상 초래

□ 地方淨水場 專門人力 不足

- 1개 정수장 평균 근무 인력 15명중 정수관련 전문직(환경, 보건, 화공)은 2~3명에 불과

□ 수돗물 水質基準 미흡

- 이번 낙동강 사태에서 問題가 된 벤젠, 톨루엔 등 有害化學物質의 수질기준 미설정

* 한국 37개 기준, 미국 85, 영국 52, 일본 46

□ 下水處理場 處理能力의 限界

- 전국의 하수처리율이 39%에 불과하고 하수관거가 합류식 이어서 오염물질 처리 효과 미흡
- 현재의 하수처리장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인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3. 改善對策

가. 낙동강 水系 對策

□ 責任監視 團束體制 確立

- 금호강 등 낙동강의 주요 하천별로 개별공장과 세천, 지천, 본류 구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매일 수질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관리철저 및 이행실태 수시점검
- 수계단위 인접 시도(시.군)간 비상 통보망 구축

□ 淨水方法 改善

-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방법의 조기.도입
 - 수자원공사에서 집중기술 지원
- 알루미늄 농도 저감을 위해 약품투입방법 등 개선

□ 淨水場 管理能力 提高

- 수당 등 인상으로 전문인력 확보
-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의 조속 보강
 - * '94. 1월중 소요조사후 인력. 장비 보강계획 수립
- 정수장 및 상수보호 감시를 위한 공익봉사 군무요원(가칭) 활용방안 강구

□ 高度淨水處理施設 擴充

- 내년부터 추가로 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우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모든 정수장에 최신기법의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지원(총사업비 1,457억원으로 추정)
 - 하수처리장 시설, 정수장비 보강 등에 집중 재정지원
- 선진외국의 고도정수처리기술 도입 및 국내기술개발 보급

□ 금호강 水質 集中改善

- 下水處理場 건설계획 차질없이 추진
 - '96까지 건설 계획중인 사업 3개
- 영천댐 도수로 건설 사업 추진 ('91~'97)
 - 1일 40만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 工團廢水處理場 완비
 -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적기 건설

□ 합천댐 광역상수도 事業 검토

- 우발적 환경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낙동강 下流地域에 대한 좋은물의 安定的 供給을 위해 합천댐 建設 검토

나. 他水系 對策

□ 漢江水系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 生活下水. 畜産廢水 유입 방지
 -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수중보 하류로 이송 방류하기 위해 별도관로 매설공사(500억원 소요) 신규 추진
- 上水源 上流 축산폐수 배출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설치 지원
방안강구
- 갈수기중 수중보 물갈이 實施
- 既 推進中인 서울시의 충분하고 깨끗한 수돗물 供給對策" 지속 추진
 - 한강상류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이천, 원주 등 10개소) 등

□ 筇山江 水系

- 목포시까지의 주암댐 1단계 廣域上水道 建設 時期短縮 ('95.12 → '95.10)

□ 錦江 水系

- 전주권 廣域上水道 事業('92-'95) 및 용담댐 建設工事 ('92-'98) 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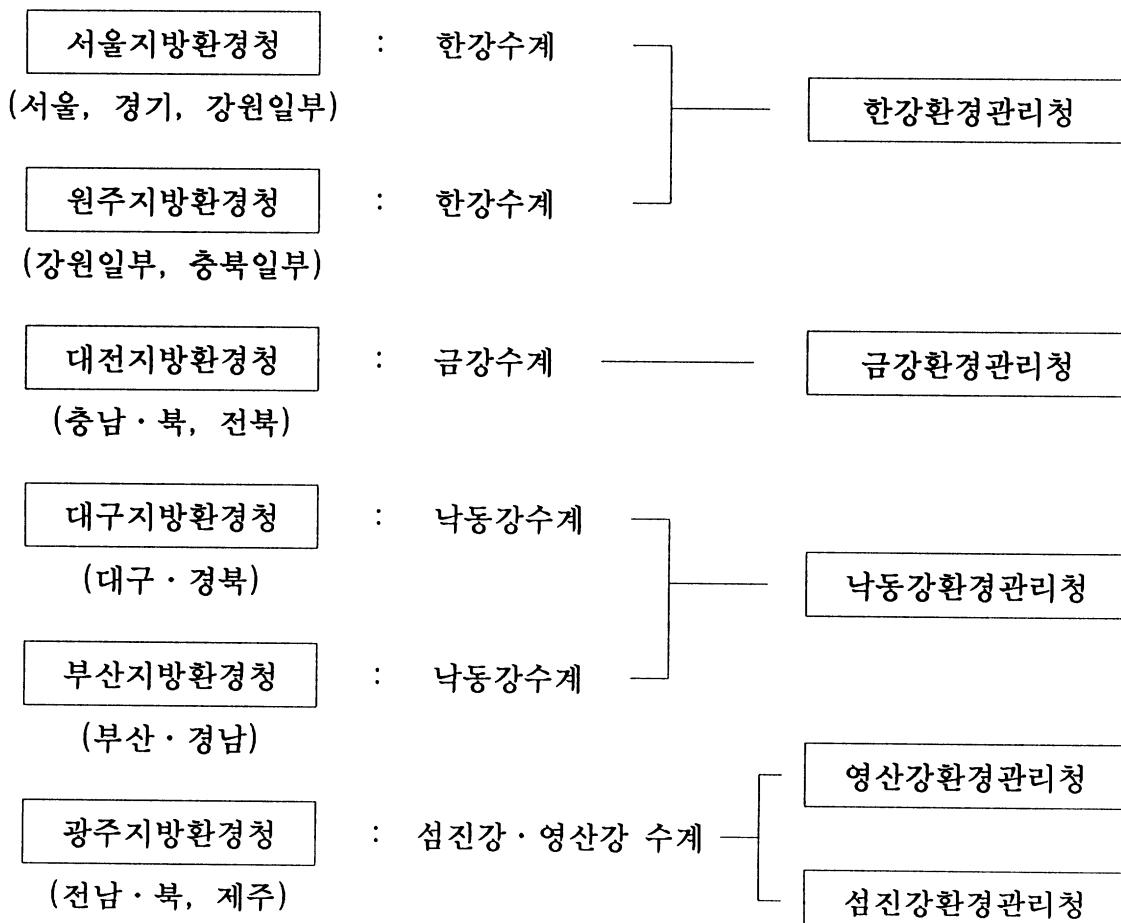
다. 共通對策

□ 물管理 機能體系 統合遂行

- 현행 6개 地方環境廳을 5대강 水系別 水質管理 전담기구로 개편

- 지역단위에서 처리가 용이한 폐기물 관리 기능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수질관리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
- 환경처에 수계별 상수원 수질연구소 설치

(현 행)



- 물의 質的管理와 量的管理 책임의 명확화와 連繫. 效率化
 - 質的管理 기능은 환경처, 量的管理 기능은 건설부가 책임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 단속기능은 환경처로 일원화 되 구체적인 기능 조정은 총무처가 검토 결정
- 質的管理와 量的管理 기능의 유기적 업무추진체계 강구 및 표준업무 지침 작성
 - 오염사고 발생시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
 - 지방환경청은 각 정수장 및 하류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
 - 지방환경청이 댐관리 기구에 즉시 통보하고 댐관리 기구에서는 당일로 방류량 증대문제를 결정 통보
 - . 지방환경청 요구시에는 단기간의 발전 방류량 문제가 있더라도 방류량 증대 * 댐관리 기구는 방류량을 상시 지방환경청에 통보
- 原水 수질과 淨水水質 관리기능의 統合一元化
 - 보건사회부의 음용수기준 설정, 생수시판 및 자치단체의 약수터 관리 감독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
- 주요지역 오염상황 상시 측정
 - 주요공단지역, 화학물질 폐수 배출공장 인근의 세천. 지류. 본류의 수질은 매일 점검

□ 廣域上水道 建設擴大 및 早期推進

-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27%에서 54%로 확대
 - 금년중 금호강, 주암댐, 수도권(N) 광역상수도를 완공하고 충주댐, 부안댐, 밀양댐 등 10개 광역상수도 새로이 착수
 - 앞으로 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양질의 물을 공급

□ 農漁村 簡易上水道 施設改良

- 전국 28,329개소의 간이상수도 중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간이상수도를 일제 조사·개량 추진
 - 소요예산은 UR대책의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조달

□ 水道管 管理 改善

- 낡은 수도관 개체 및 녹슬지 않는 수도관 사용
 - '97년까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
 - * '94 용자예산 1,0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3,865km 개량
 - '94.4.1부터 녹이 잘스는 아연도강관은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 下水處理場 早期建設

- 대구, 대전, 광주직할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위해 이들 도시에 특별 재정지원

- 기타 수계 상수원주변 환경기초시설 추가설치 및 조기완공
 - 한강수계 :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용인 등
 - 금강수계 : 부여, 공주

□ 河川 水質汚染 事故防止 對策 推進

- 수계별 미량유해물질 실태 정기정밀조사 실시
 - 우선 주요상수원 주변에 대해 미량유해물질 존재 실태 정기조사
- 하천수질오염사고 사전대비 태세 강화
 - 전국의 시·군 및 취수장에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사전비축

□ 水質管理의 根本發想 轉換, 公開化

- 전국 5대강 수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
 - 정부. 민간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운영

□ 水質汚染 業體 處罰強化

- 기업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기록. 관리 소홀시 형사처벌
 - * 현재는 과태료부과 중심이나 형사 처벌로 전환

□ 水道專門人力養成

- 전국에 2-3개 수도관련 전문학과 또는 과정 신설
 - 서울시는 시립대학에 수도공학과 설치
 - 부산 등의 1-2개 대학에 전공학과 또는 전공과정 설치

□ 飲用水의 水質基準 및 檢查基盤 確立

○ 飲用水 水質基準 강화

-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이번에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 등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우선 설정

○ 檢查機關 確保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 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
 - * '94년도에 인력. 장비 소요를 정밀조사하여 조치계획 확정

□ 「맑은물 지키기 위한 沢國民運動」展開

○ 住民監視申告活動 적극 전개

- 환경단체, 부녀조직, 활동력있는 지역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 감시원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상시 감시. 단속 체제확립

○ 河川淨化活動 적극 전개

- 「전국토청결의 날」 및 주말정화시 하천정화활동을 중점 전개하여 수질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 하천주변 기관. 단체의 「청결책임구역」을 하천중심으로 재편, 집중적인 정화활동 실시